



강진 김명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 본격 운영한다

이달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운영 시작

순천시는 자원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을 위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의 개관식을 지난 달 31일 오전 10시 개최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운영하게 되는 '순천업사이클센터 더새롬'은 지난 2016년 환경부 시범신도시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 47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연면적 1115㎡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연향동(팔매길 9-19)에 건축했다.

'업사이클센터'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헌옷, 자투리 천, 플라스틱, 나무상자 등 자원

재활용 가능과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을 교육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인 대구, 인천, 서울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순천시가 처음 운영하게 된다.

운영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전시관, 놀이체험장, 공방, 교육실이며 놀이체험장에서는 어린이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놀이, 순천만 식물 퍼즐 맞추기 등 13종류로 놀이교육이 가능하다.

2018년 11월에 준공된 순천업사이클센터는 그동안 운영위원회 구

성과 공방 입주자 선정 등 준비를 끝내고 7월 19일까지는 제1기 프로그램 10개 과정에 업사이클 전문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관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업사이클 무료 작품전시회와 온누리 공영자전거와 안전모를 이용한 실내 조경으로 방문객들에게 순천형 업사이클링 볼거리를 제공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업사이클센터 개관을 계기로 각급 학교와 관내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협력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으로 업사이클 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관광포럼' 열고 광양축제 진단과 발전방향 토론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관광포럼에서 축제전문가 육성 및 차별적 콘텐츠 발굴이 성공적인 축제의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비달길 6권역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관광포럼에는 관광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시민 지자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정현복 광양시장의 개회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우리나라 축제전문가로 꼽히는 경희대 이수범 교수의 주제발표, 배재대 정강환 교수의 사례발표로 포럼의 막을 열었다.

이어 이수범 교수를 좌장으로 박노신 광양시의회의원, 황인석 순천마임축제 총감독, 장진만 (주)월드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국내 유수의 관

광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가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범 교수는 "광양시의 축제가 대부분 자연 의존적 축제가 많아 자연 상황에 따라 축제의 불확실성이 커 문체부 축제진입에 한계가 많다"며 "기존 축제에 대한 축제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변화와 광양제철이라는 산업 분야를 긍정적으로 살펴 인공적 콘텐츠를 입힌 신규축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복 시장은 개회사에서 "광양시가 다소 늦게나마 관광에 관심을 갖고 예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은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력이 크고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관광복지를 실현해 삶의 질을 높여나기 위함이다"며 "이번 포럼에서 지역관광의 큰 축인 지역축제에 대해 합심단회하게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고흥군, '귀농귀촌 상담서비스' 진행

고흥군이 최근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 경기지역 도시민 대상으로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의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에서 '고흥군의 날 귀농귀촌 지역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지역맞춤형 상담서비스는 고흥군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 지난 3월부터 전국 도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다양한 거주 지역에서 40여 명이 상담신청을 하였다.

고흥군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건강도시 고흥의 여러 가지 장점과 농산물 특산물 생산에 따른 기후조건 타 지역과의 귀농·귀촌 차별화 시책, 귀농귀촌 학교 조성 등을 내용으로 시책 설명회(PPT)를 가졌다.

설명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부동산 가격정보, 대표 특산물 작물소득, 빈집정보, 귀농교육,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등 고흥군의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심층상담을 통해 지역정보를 습득하고 높은 만족감을 가졌다고 한다.

고흥=한운섭 기자



영광군, 건강한 발걸음 1530 건강걷기

물무산 행복숲 · 법성면 인의산서 사업 추진

영광군은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영광읍 물무산 행복숲과 법성면 인의산에서 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30이란, 1주일에 5번 이상 30분 운동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뜻이며 걷기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며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번 1530 건강걷기는 참여자와 운동사가 매주 2회씩 바른 자세 걷기 및 근력 향상을 위한 건강체조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5월은 참여자 스스로 걷기를 실천하는 과정

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걷기 프로그램 참여자의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인바디 등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 체중 및 체지방률 등 건강수치의 변화를 환류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추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생활 걷기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자 중 걷기 리더 회맹자를 양성하여 군민들의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최선으로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 단호박 조기 출하 '본격화'

함평군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는 함평 단호박을 조기 출하한다. 일반적인 출하시기(6월 말~7월초)보다 한 달여 이상 빠르다.

그간 군은 시설하우스 지원, 제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조기 재배를 적극 권장해왔다.

국내산 단호박이 귀한 시기를 선점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었다.

함평군 지역특화작목인 단호박은 타 지역 제품보다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기후, 강수량, 무상일수 등 적절한 자연환경 덕분이다.

현재 함평 단호박 재배규모는

270농가 206ha로, 연간 4,000톤 이상의 단호박이 생산된다.

군은 앞으로도 시설재배를 장려하는 한편, 단호박 가공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백형규 함평군 친환경농산과장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함평 단호박을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허석 순천시장 관광객 서비스 챙기기에 나서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문화의 거리 한옥골방에서 숙박·외식업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감동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2019 순천방문의 해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대비해 외식·숙박 종사자 친절, 위생 등 서비스 향상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답소에서는 국가위원을 찾

은 관광객 인터뷰 영상과 설문조사, 각종 포털사이트 후기 등을 수집해 관광객이 실제 느끼는 생생한 후기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서비스 개선 뿐 아니라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끌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순천에 대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관광객 접점에 있는 숙박·외식업계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례 정해미술관 개관 특별전 개최

고미술품 전문 미술관인 구례의 정해미술관이 7일부터 개관 특별전을 선보인다.

500년 전 전남도 보성 지역에서 제작된 분청사기를 비롯하여 차와 향에 관련된 고미술품 6점과 서예가 소암 조문규의 작품 등 총 16점을 전시한다. 500년 전 제작된 분청회청사기 달방문발이 대표적인 전시품이다.

미술관이 소장·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은 약 300점이며, 차와 향에 관련된 고려말·조선조기의 분청사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선시대 귀일문 집시, 장흥 보림사에 이어져온 딱자 청태전 등도 살펴볼 수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총대 사업 관계기관 진정
 - 구체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